

이건음악회 30th

클래식 거장들의 무대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앙상블'

'할머니의 내일'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나눔의 집' 주최

정상급 연주자들의 선율로 빛을 30년 문화 기부의 결실.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견은 지난 1990년부터 '이견 음악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며 문화 나눔에 앞장서 왔다.

스테그나-울프강 탈리츠(비올라), 야누스 위드지크(더블베이스)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관객을 맞는다. 이들은 베를린 필 활동과 함께 베를린 필하모닉 현악 5중주단,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등 다양한 앙상블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작곡가 타르티니의 '트럼펫 협주곡'과 아우구스트 빌헬름의 편곡 'G선상의 아리아'로 잘 알려진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중 '에어(Air)', 비발디 협주곡 '화성의 영감' 중 9번을 바흐가 편곡한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이 이어진다.



김복동 작 '14세 소녀가 끌려가는 날'

30번째를 맞는 올해 공연에는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이견 음악회 30회를 기념해 결성한 12인조 실내악 그룹 '베를린 필하모닉 이견 앙상블'을 초청했다.

솔리스트로 나서는 트럼페터 안드레 쇼흐는 엘리제-마이아 재단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고 베르너-스토버 재단 수여 음악상, 합부르크 국립오페라단 재단 '에두아르트 쇠링상' 등을 받았다.

티켓은 2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국에서 선착순(1인 2매) 무료 배포한다. 티켓을 받은 후 참석 여부를 전화(032-760-0898)로 통보하면 된다. 티켓 배포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는 9일 오후 8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30회 기념 음악회에는 베를린 필 소속인 루이즈 필립 코엘료-루이스 에스나올라(제1 바이올린), 안나 멜린-베티나 사르토리우스-레이첼 슈미트-로마노 토마시(제2 바이올린), 마틴

로알 콘서트트레바우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타티아나 바실리에바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러시아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고 클래식 매거진 CHOC 상, 디아파송 황금상 등을 수상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엔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또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을 연주하는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 전통건반악기 전공 교수 크리스찬 리거도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으로 막을 올린다.



매년 세계적 아티스트 초청 클래식 연주회 30회 기념 베를린 필 12인 앙상블 결성 9일 오후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서 공연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비발디 '사계' 등

올해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처음 밝혔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물며 미술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1998년 '14세 소녀가 끌려가는 날'을 그렸다. 할머니의 삶은 다큐멘터리 '김복동'으로 제작돼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눔의 집'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신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국내외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구리, 서울, 부산, 청주, 대전 등을 거쳐 9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할머니의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투영된 위안부 피해자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할머니들을 피해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도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역사와 할머니들의 그림과 노래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백여 장의 일상사진과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1부 '할머니의 어제'에서는 일제의 피해자 강제동원과 위안부 제도, 해방 이후 피해자들의 귀환에 대해 다루며 피해 당시 사용되었던 군표, 찻구, 606주사기, 일본군 군복 등의 유물이 전시된다.

2부 '할머니의 기억'에서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려진 할머니들의 그림들이 고향, 고통, 소망이라는 주제로 선보이며 3부 '할머니의 오늘'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할머니들의 노래와 희로애락을 담은 사진 수백여 장이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4부 '할머니의 내일'에서는 지난 27년간 촬영한 할머니들의 삶을 이옥선 할머니의 나레이션과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223-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김인재씨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김인재(60·사진)씨가 선임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선임된 김인재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천 출신으로 단국대 음악학과(작곡 전공)를 졸업한 김 지휘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코이아 칼리지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리노이대학 합창지휘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지휘자는 제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전주시와 서귀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2년이다.

김 지휘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예술적 역량과 더불어 합창단을 원만하게 운영할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받으세요"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나 작품을 관람하면서 사용한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항목은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문화포털'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243곳이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해당 사업자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1688-07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ing various building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offices.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highlight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product benefits.